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BC카드 · 한경 레이디스컵 2025 우승자**

**김민솔 코멘트 및 각종 기록 + 박민지 홀인원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BC카드 · 한경 레이디스컵 2025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21일(목) ~ 8월 24일(일) |
| 3 | 장 소 | 포천힐스컨트리클럽 [가든(OUT) / 팰리스(IN)] |
| 4 | 주 최 | BC카드, 한국경제신문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5억 원 (우승상금 2억 7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63야드-예선, 6,561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19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박현경, 홍정민, 이예원, 방신실, 노승희, 이동은, 김민선7, 이가영, 김민주  정윤지, 배소현, 박혜준, 고지원, 박보겸, 유현조, 박지영, 김시현, 송은아  서지은, 박민지, 장하나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김민솔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(62-66-72-69) 우승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725>

**[김민솔 이번 대회 관련 주요 기록]**

**\*역대 KLPGA투어 13번째 추천, 초청 선수 우승**

텍스트, 스크린샷, 번호, 폰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- 시즌 6번째 와이어투와이어 우승**

**텍스트, 스크린샷, 폰트, 번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
**\* 역대 와이어투와이어 가장 많았던 시즌 : 2008년(8회)**

**- 2025시즌 6번째 생애 첫 우승자(김민주, 김민선7, 이동은, 박혜준, 고지원, 김민솔)**

**- 정규투어 시드권 확보**

\* ‘KB금융 스타챔피언십’(참가자명단 미발표 대회부터 출전 가능)부터 2026시즌까지 확보

**[김민솔 타이틀 순위]**

\*\*초청/추천 선수의 경우 공식 기록 중 상금과 참가대회 수에 한하여 당해연도 공식 상금 누적 기록에 포함되지 않음

\*\***상금순위:**  시즌 대회 수의 **30% 이상** 참가자만 순위 부여

\*\***대상포인트, 신인상 포인트 및 기타 기록:** 시즌 대회 수의 **50% 이상** 참가자만 순위 부여

**\*2025시즌 정규투어 기록**

텍스트, 스크린샷, 폰트, 번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\*2025시즌 드림투어 기록 – 시즌 4승**

텍스트, 스크린샷, 번호, 폰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\*개인 기록**

텍스트, 스크린샷, 폰트, 번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[김민솔 코멘트 – 대회조직위 제공]**

**Q. 우승 소감은?**  
처음으로 챔피언조에서 경기했는데 초반에는 잘 풀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.

**Q. 포기하지 않게 해준 힘은 무엇인가?**  
올해 선두권을 했던 그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. 욕심내지 않고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렸다.

**Q. 경기 중 스코어를 계속 확인했나? 선두와 격차가 있어 우승이 멀다고 생각하진 않았나?**  
두 타 이상 벌어진 적이 없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. 욕심내지 않고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다. 16번 홀부터는 승부수를 던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려 했던 게 잘 맞아떨어졌다.

**Q. 이글 퍼트가 들어갔을 때 기분은 어땠나?**  
넣으려는 마음으로 치긴 했는데 들어갈 줄은 몰랐다. 내리막 라인이었는데, 그린이 빠르지 않아 짧게 치지만 말자고 생각했다.

**Q. 오늘 컨디션은 어땠나?**  
샷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. 잠은 잘 잤지만, 전날부터 긴장을 많이 했고,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 했다.

**Q. 작년에는 아쉬운 성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극복했다고 본다. 계기가 있었나?**  
작년 목표를 이루지 못해 힘들었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. 오히려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. 처음으로 골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. 부모님이 ‘큰 선수가 되려니 지금 아픈 것’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.

**Q. 기술적인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나?**  
스윙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했고, 전지훈련에서 다양한 코스에서 유연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연습했다.

**Q. 이번 시즌 아직 10개 이상 대회가 남았다.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가?**  
시즌 초 목표는 ‘계속 성장하자’였다. 드림투어에서 잘 준비한 것처럼 이제는 정규투어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.

**◈ 박민지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(66-73-67-68) \*\*개인 통산 첫 홀인원 기록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772>

**대상홀 : 6H**

**클럽 : 5i**

**제품명 : 로봇커피 비트 3.0x (부스, KIOSK)(8천만원 상당)**

**프로 데뷔 후 첫 홀인원이다. 기분이 어떤가?**  
연습 라운드 때도 홀인원을 해본 적이 없었고, 16살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이다. 홀인원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놀랐고, 만세도 못 하고 얼떨떨했다.

**예전부터 “우승보다도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다”는 말을 했는데 소원을 이뤘다.**  
보기 하나를 기록한 후라, 버디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홀인원이 나왔다. 그 덕분에 기세가 살아나 연달아 버디도 했다.

**홀인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**  
오른쪽 뒷핀이었고, 5번 아이언으로 쳤다. 공이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고, 약 8m를 굴러가 들어갔다. 공이 사라지는 것도 보였다.

**상품으로 커피 머신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?**  
나는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다. 부모님과 상의해야겠지만 아마 학교나 필요한 곳에 기부할 것 같다.